

潘溪 俞好仁의 〈花山十歌〉 攷

李九義*

|| 차례 ||

1. 머리말
2. <화산십가>의 외형적 성격
3. <화산십가>의 구성과 의미
 - 1) 지리적 위치와 시인의 의식
 - 2) 주민들의 생활상과 당시 정세
 - 3) 현실의 고난에 대한 극복의지
 - 4) 농사일의 마침과 자아의 희망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潘溪 俞好仁(1445-1494)의 <花山十歌>에 나타난 자아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형식면에서 보면, <화산십가>는 五言律詩 10首로 된 連作詩이다. 구성면에서 보면, 이 시는 起承轉結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서정적 자아는 3인칭 목격자 시점, 또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자신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 이 시의 창작 대본은 『詩經』이다. 이 시에서는 國風의 여러 시에서 用事하고 있다.

넷째 내용면에서 보면, 이 시는 사회시 또는 紀俗詩이다. 여기에 나타난 자아의 정신은 민중의식 또는 서민의식이며, 重商主義가 아니라 重農主義이다.

다섯째 이 시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月令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를 의미단락으로 가르면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안동의 지리적 위치와 시인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의 의식이 나타난다. 그는 淵源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면 안동 지방의 연원이지 만, 그 이면에는 그의 학문하는 방법이 녹아 있다.

둘째는 주민들의 생활상과 당시의 정세를 묘사하고 있다. 그의 생각은 희망적이며 긍정적이었다. 이 점은 그의 성품과 일치한다.

셋째는 현실의 고난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자이는 청량산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넷째는 농사일의 마침과 자아의 희망이다. 그는 正名意識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이를 통하여 먼 옛날 堯임금의 唐나라 때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理想이다.

끝으로 이 <화산십가>에서는 도학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뒷날 事理에 중점을 둔 조선 후기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주제어 : 視點, 紀俗詩, 淵源, 清涼, 理想, 現實

1. 머리말

花山은 慶尙北道 安東의 다른 이름이다. 潘溪 俞好仁(1445, 세종 27-1494, 성종25)¹⁾이 1491년 47세의 나이로 안동에 갔을 때 <花山十歌>를

1) 뇌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俞炳奭, 「뇌계 유희인의 인생시 고찰」, 『한국학논집』1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1-18쪽

俞炳奭, 「뇌계와 허암의 詩文對比」, 『한국학논집』1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1-20쪽

趙慶年, 「유희인의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高南植, 「뇌계 유희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崔載南, 「유희인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3, 태학사, 1998. 235-268쪽.

崔錫基, 「뇌계 유희인의 志趣와 시문학」, 『남명학연구』20,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31-87쪽.

張炳漢, 「뇌계 유희인의 유학 공부론과 실천론」, 『한문학보』17, 우리한문학회, 2007. 551-580쪽.

지었다. 이 시는 선비이자 목민관인 시인이 안동의 풍속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시로 표현하였다. 조선 전기와 중기에 안동 지방의 풍속을 노래한 시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이 시를 고찰함으로써 당시 서민들의 생활과 목민관의 자세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호인은 조선 초기의 문신, 문장가이다. 본관은 高靈이며 자가 克己, 호는 林溪 또는 潘溪²⁾이다. 그의 아버지는 俞蔭이다. 그는 佔畢齋 金宗直의 문인으로 詩文을 잘 지었다. 1462년(세조 8)에 생원이 되고, 1474년(성종 5)에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奉常寺副奉事를 거쳐, 1478년 賜暇讀書한 뒤 1480년 居昌 縣監으로 부임하였다. 그 뒤 工曹佐郎을 지냈고, 1486년 檢討官을 거쳐 이듬해 『東國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하였다. 弘文館 校理로 있다가 義城縣令으로 나갔다. 1490년 『俞好仁詩藁』를 편찬하여 왕으로부터 表裏를 하사받았다. 글을 좋아하는 성종의 총애를 받아서 왕명으로 『續匪懈堂四十八詠』을 짓기도 하였다. 1494년 掌令을 거쳐 陝川郡守 재직 중 병사하였다. 長水의 淸溪書院, 咸陽의 藍溪書院에 祭享하고 있다. 저서로는 『潘溪集』이 있는데, 그의 아들 琬이 동료의 도움으로 1530년경에 咸陽에서 간행한 초간본을 追刻·補板한 후쇄본이며, 분량은

李東宰, 「너계 유호인의 『東都雜詠』시 一考」, 『한자한문교육』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1-24쪽.

劉永奉, 「너계 유호인이 남긴 『續匪懈堂四十八詠』과 몇 편의 謠에 관해」, 『한문학보』17, 우리한문학회, 2007. 209-238쪽.

이상철, 「너계 유호인 사상의 도학적 고찰」, 『유교사상연구』30, 한국유교학회, 2007. 35-77쪽.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유호인에 관한 논문은 최석기, 장병한 교수 등의 논문이 작품과 시인의 내면을 결부하여 고찰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시의 외연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고는 이점을 보완한다.

2) 너계의 先系는 고려 말에 軍職을 위하여 上京 종사하였다. 그의 조부는 妻鄉을 따라 한 때 전라도 長水로 낙향하였고, 그의 부친이 다시 그의 처가가 있는 咸陽으로 이주하였다. 『咸陽郡誌』를 보면, 군의 서쪽 竹館에 정착하였다고 하는데, 너계의 후손이 끊겨 『孤臺日錄』을 남긴 鄭慶雲 집안에서 外孫奉祀하고 있다고 한다.

7권 2책으로 총 216판이다.

본고는 『韓國文集叢刊』15의 『潘溪集』 안에 실려 있는 <花山十歌>를 통하여 그가 관리로서 어떠한 자세를 지녔는가를 먼저 고찰한다. 이어서 그가 이 시를 지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한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시의 형식과 내용, 그리고 당시의 시대상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어서 이 시에 녹아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고찰하는 것이 이 논문의 이차 목표이다. 본고의 대부분은 『潘溪集』이며, 그 외 필요에 따라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로 한다. 본고의 진행 방법은 인문주의 비평 방법에 따른다.

2. <화산십가>의 외형적 성격

<화산십가>는 첫째 형식면에서 보면, 오언율시 10수로 된 連作詩이다. 구성면에서 보면, 이 시는 크게는 4단락으로 이루어졌다. 크게 보면 이 시는 起承轉結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서정적 자아(persona)의 視點면에서 보면, 자아와 시인이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漢詩에서는 시인과 자아가 일치한다. 그것은 “시는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고, 노래는 말을 길게 늘어뜨린 것이며, 음률은 소리를 잘 조화시킨 것이다³⁾.”이나, “마음속에 있으면 뜻이 되고, 말로 드러내면 시가 된다⁴⁾.”말을 우리 선조들은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에는 시인과 자아가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즉, 자아가 3인칭 목격자 시점, 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전기까지의 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조선 후기에 가면 시인과 자아가 서로

3) 詩言志, 歌永言, 律和聲 『書經集傳』 『舜典』.

4) “在心爲志, 發言爲詩” 『詩經大序』.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서정문학이 서사문학화 하는 과정에서 생긴 현상이다.

즉,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 운문의 길이가 길어진다. 한시에 있어서는 長句가 많이 나타난다. 시조나 가사도 조선 전기까지의 작품보다는 그 길이가 상당히 길어진다. 조선 전기까지의 운문의 正格을 바탕으로 하였다면, 조선후기의 문학은 서서히 整格을 지향하였기 때문이다.

뇌계의 이 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오언율시이다. 따라서 그가 整格을 지향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 그가 자신이 그 내면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입장에서 안동 지방의 풍속을 보고 느낀 것을 묘사하였기 때문에 시인과 자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조선후기의 운문이 산문화 과정에서 오는 자아의 목격자의 시점, 또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과는 차이가 있다.

셋째 이 시의 창작 臺本은 『詩經』이다. 뇌계는 『시경』 「七月」장을 본떠 이 시를 지었다고 하였다. 다음 글을 보면 그러한 정황이 나타난다.

안동 땅은 척박하고 백성은 가난하지만, 풍속이 농사와 누에 기르는데 힘써 아껴 쓰고 검소하여 힘써 흉년에 대비함이 주밀하지 않음이 없어 다른 고을에서는 이를 따를 곳이 없었다. 이제 “그 누가 알리오 소반 위의 밥, 알알이 다 고생으로 이루어졌음을.”이라는 10자를 써서 운으로 하였다. 백성들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정황을 대강 진술하였는데, 대충 「빈풍·칠월」장의 뜻을 본떴다⁵⁾.

뇌계가 보았을 때, 안동 지방은 땅이 척박하고 백성들이 가난하다. 이 지방 사람들은 이러한 악조건을 무릅쓰고 농사와 누에를 열심히 친다. 비

5) “安東地瘠民貧，然風俗力於農桑，節用儉嗇，以至備荒之務，無不周密，他邑無及焉。今用誰知盤中飡，粒粒皆辛苦，十字爲韻，粗述民間憂思勤苦之狀，庶擬幽風七月之義也。” 『潘溪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록 나쁜 상황이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농민들이 안간힘을 쓴다. 이것을 본 뇌계가 느낌이 있어 이 시를 지었다.

그러나 10수의 시를 보면 「七月」장만 수용한 것이 아니다. 「蟋蟀」장이나 기타 國風에 속하는 다른 시들에서도 그 章의 시어들을 수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瞻彼」·「大康」·「離離」·「蟋蟀」 등이 그것이다. 뇌계의 시는 『시경』의 시를 보고 그것을 본떠 지은 擬作이다. 그것도 국풍의 몇 몇 시의 자신의 시에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이 그만큼 민간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그의 삶은 농민의 삶과는 거리감이 있다.

넷째 내용면에서 보면, 이 시는 사회시 또는 紀俗詩이다. 따라서 당시의 풍습과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시인은 주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실제 자아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농민들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서민의식, 또는 민중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시인은 나라의 基底가 되는 신분은 농민이며,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식은 重商主義가 아니라 重農主義이다. 이 당시는 아직 중상주의가 유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봄부터 가을까지이다. 즉, 농민들이 농사일을 시작하는 파종기부터 농사일을 마치는 수확기까지의 농촌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농촌의 절기에 따른 일을 묘사한 시이기 때문이다.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이 시는 이런 면에서 月令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자아의 생각을 부연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그 해결책을 자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이점에서 보면 이 시들은 교훈시라 할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에서 이미 밝혔듯이, 공간적 배경은 말할 것도 없이 안동⁶⁾ 지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화산십가>의 구성과 의미

1) 지리적 위치와 시인의 의식

뇌계의 <화산 십가>7)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단락마다의 의미를 살펴보고 나서, 뇌계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였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첫째 시에서는 안동의 지리적 위치를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이 시에서는 자아가 무엇을 추구하였는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 물론 겉으로 보면 안동 지방의 연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뇌계의 학문하는 방법도 녹아 있다. 그의 학문하는 방법은 다음 아닌 그 연원을 찾는 것이다.

太伯山中雪 태백산 깊은 곳에 쌓인 눈이,
陸離粲朝曦 찬란한 아침 햇살이 빛나네.

6) 뇌계가 시에 화산(花山) 등의 안동 지명이 나타나는 시는 여러 수가 있다. 즉, 「장난 삼아 인숙에게 준(戲贈仁叔)」(『潘谿集』卷2, 『한국문집총간』15, 109쪽)에는, “상산이 공자는 봄바람에 괴로워하다, 시가 화산에 이르자 열배 좋아졌네.(商山公子惱東風, 詩到花山十倍工)”이나, 「초계의 심태수에게 부침(寄草溪沈太守)」(『潘谿集』卷2, 『韓國文集叢刊』15, 121쪽)의 “바람을 품고 늙어 감이 정히 어머하고, 구름 밖에는 화산이 눈에 가득 들어오네(風懷老去定如何, 雲外花山入眼多).”, 「서호에 놀다가 저 물어 오정문에 들어옴(遊西湖 暮入午正門)」(『潘谿集』卷4, 『韓國文集叢刊』15, 136쪽)의 “화산의 이북에 옹풍이 일어나니, 황교의 들에는 ○모가 열리네(花山以北生雄風, 黃橋之野開○暮).”, 「문소 향교에서 계운과 함께 과시를 하는데 유생들을 모두 모아놓았다. 나는 시의 압운을 화사 윤료와 필승인 성묵에게 보내어 각각 웃기는 시를 지어 적막함을 깨뜨리라고 함(聞韶鄉校同季雲課試都會儒生予以詩押送畫師尤了筆僧性默令各呈戲以破閑寂)」(『潘谿集』卷4, 『韓國文集叢刊』15, 138쪽)에도, “화산 화사의 배는 북과 같아, 백발에 취해서 부상무를 추네(花山畫師腹如鼓, 白髮醉作扶桑舞)”, 「화산 교방요(花山教坊謠)」(『潘谿集』卷4, 『韓國文集叢刊』15, 144쪽), 「안동향교요(安東鄉校謠)」(『潘谿集』卷7, 『韓國文集叢刊』15, 196쪽), 「화산 향교요(花山鄉校謠)」(『潘谿集』卷7, 『韓國文集叢刊』15, 197쪽) 등이다.

7)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春風入黃池 봄바람이 황지(黃池)에 드니,
 活活流水漸 팔팔 얼음 녹은 물이 흐르네.
 我事不可緩 내 할 일은 늦춰서는 안 돼,
 西疇須及時 서쪽 밭에 때맞추어 해야지.
 于茅索絹詠 띠로 새끼 꼬며 부르는 노래,
 歷歷當告誰 분명히 그 누구에 알려야 돼.

먼저 이 시에 나타난 시간적 배경은 봄이다. 봄이 되니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내린다. 자이는 태백산에 쌓인 눈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 눈이 녹는다고 하였다. 이 구절을 보면 자아의 마음은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밝다. 태백산은 한반도 脊梁山맥인 태백산맥의 主峰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상도의 지리적·문화적·역사적 경계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태백산을 기점으로 해서 소백산맥이 형성되어 이 산의 남서쪽으로 발달한다. 소백산맥의 주봉인 소백산은 경상도 영주와 충청도 단양을 가르는 경계이다. 자이는 그 가까이 있는 소백산이 아니라 그 근간이 되는 태백산을 들어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頷聯에서 나타난다.

자이는 함련에서 봄바람이 黃池에 드니 얼음이 녹은 물이 팔팔 흐른다고 하였다. 황지는 낙동강의 源頭이다. 이 샘물은 태백산의 동·남·북쪽으로 흘러 황지천을 이루며, 이것이 낙동강의 원류가 된다. 선비들은 源流를 찾으려 하였다. 겉으로는 강이나 산의 근원을 찾으려하였다. 자아가 태백산과 황지를 거론한 것도 支流가 아니라 원류를 찾겠다는 생각에서이다. 이러한 의도는 南宋의 朱熹의 시에 바탕하고 있다. 주자의 「책을 보고 느끼미 있어(觀書有感)」라는 시 2수 가운데 그 첫 번째의 전구와 결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즉, “문노니 어찌하여 맑기가 그와 같은가, 근원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⁸⁾.”이라 하고 있다.

봄이 되어 산 속 깊숙이 쌓인 눈이 녹아 흘러내린다. 그 물은 源頭에서 나왔기 때문에 깨끗하기 그지없다. 이것은 자아의 마음에 邪心이 섞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류의 물은 깨끗하다. 또 물이 흘러가는 도랑이 좁기 때문에 그 힘이 세차다. 상류의 물은 불순이 없기 때문에 혼탁하지 않다. 그만큼 자아의 심정도 흐르는 물처럼 깨끗하다.

경련에 가면, 자이는 자신의 할 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자기의 할 일은 자아 자신의 할일이 아니라 화산, 즉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이다.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농부들은 들에 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서경』에도, “희중에게 나누어 명하여 우이에 머물게 하시니, 그것을 양곡이라 한다. 나오는 해를 공경이 맞이하여 봄에 시작하는 일을 고르게 하니 해는 중간이고 별은 조수이다. 때맞은 중춘이 되면 백성들은 흠어져 살고 조수는 새끼를 낳고 교미한다⁸⁾.”고 하였다. 봄이 되니 삼라만상이 생기를 되찾는다. 봄은 만물을 소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도 내 할일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내가, 즉 주민들이 할 일은 다름 아닌 농사이다. 西疇에 나가 때맞추어 해야지 라고 하였으니까.

또 자이는 尾聯에서, 띠 즉 짚으로 새끼 꼬며 부르는 노래를 분명히 그 누구에게 알려야 된다고 하였다. 띠로 새끼 꼬는 것은 농사의 준비이다. 즉, 못자리를 할 때 새끼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농기구를 묶을 때나 무논에 줄을 칠 때도 새끼가 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첫 번째 시는 먼저 안동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묘사하였다. 안동은 태백산의 황지에서 발원한 낙동강이 흐른다. 자이는 이 강의 원두로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였다. 이것은 봄이라는 계절과 맞물려 있다. 즉, 모든 생명의 근원인

8) “問渠那得清如許，爲有源頭活水來。”『朱子大全』卷1.

9) “分命羲仲，宅嵎夷，日暘谷，寅賓出日，平秩東作，日中星鳥，以殷仲春，厥民析，鳥獸孳尾。”『書經集傳』卷1，「堯典」.

봄과 강물의 근원은 원두는 모두 처음, 또는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서로 통한다. 이 시에 등장하는 자이는 시인과 일치한다.

두 번째 시¹⁰⁾는 백성들에게 농사일에 힘을 쓸 것을 독려하고 있다. 자이는 그곳 주민들이 부지런히 일하여 恒産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것은 자라의 바람이다. 시의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花山昨夜雨	어제 밤에 화산에 내린 비가,
一雪沾公私	한꺼번에 온통 다 적셔버렸네.
隔林布穀聲	건너 숲에 우짖는 포곡새소리,
催却耕耘遲	논밭갈이 늦는다고 재촉하네.
牛車戴月出	소 수레에 달빛 싣고 나가서,
急報隣翁知	급히 이웃 늙은이께 알린다네.
努力務恒産	노력하여 향산에 힘을 써야지,
此非安臥時	지금 편히 누웠을 때 아니네.

봄이 되어도 날이 가물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 이렇게 되면 농사일을 할 수가 없다. 봄에 가물면 그해는 흉년이 들 확률이 높다. 파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이는 간밤에 화산에 내린 비가 온 대지를 다 적셨다고 하였다. 여름의 지루한 장마가 아니라 봄이 되어 온 천지를 적시는 時雨이다. 따라서 한해의 농사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 봄부터 기후가 잘 맞으니까.

봄비가 내리자 건너 숲에서는 포곡새 소리가 들린다. 새들도 봄을 맞아 활동을 재개한다. 물론 새들은 겨울에도 활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봄이 되면 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진다. 봄이 되면 새들은 번식한다. 즉,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것은 농부들이 들에 나가 새로이 농사를 시

10)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작하는 것과 같다. 즉, 만물의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는 철이 바로 봄이다.

봄이 되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분주하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거나 새로이 농사일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함련의 對句에서 이러한 정황이 나타난다. 봄이 되어 건너 숲에서 포곡새가 우짖기 시작하자 농민들은 농사일에 분주하다. 어른들은 논밭갈이가 늦다고 소리를 지른다. 여기서 논밭을 가는 사람과 소리치는 사람은 서로 다르다. 신분이나 지위로 말하면, 고함치는 사람이 직접 논밭을 가는 사람보다 그 지위가 높다. 고함치는 사람이 논밭의 주인이라면 그 고함소리에 응하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이나 소작농이다. 여기서 자아는 목격자이다. 포곡새가 울자, 주인이 하인들에게 빨리 논밭을 갈아 농사를 시작하라는 말을 자아가 들었다. 물론 자아는 하인이거나 소작농의 위치가 아니라 주인의 위치에 있다. 그것은 자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勸農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頸聯에서는 농사일을 직접 하는 사람이 하루 시작하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는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 수레에 달빛을 싣고 나간다고 하였다. 수레에 달빛을 싣고 나간다고 하였으니, 아직 먼동이 뜨기 전에 농부들이 벌써 일할 준비를 하여 논밭으로 나간다. 날씨가 따듯해지니 몸이 나른하기 쉽다. 이에 더하여 일이 힘드니 농부들은 고단하다. 여기에 더하여 주위에서는 빨리 일을 끝내라고 재촉한다. 이렇게 되니 몸이 더욱 피로하다. 봄비가 흠뻑 내려 농사일을 시작하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힘들여 일을 하는 농민들이 안쓰럽다. 이것이 자아의 심정이다. 일이 바쁘니 늙은이라도 그 일을 거들어야 된다. 논밭 주인이 자신의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빨리 일을 시작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독려를 하는 사람은 일차적으로는 논밭의 주인이겠지만, 이차적으로 보면 바로 자아이다. 즉, 자아 자신이 주인의 입장이 되어 화산의 주민들에게 勸勉하고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恒産에 힘쓰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안

동 지방은 이 시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다른 고을보다 나은 점이 전혀 없다. 토질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되지 않는다. 농사가 잘 되지 않으니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다. 수확이 없으면 백성들의 생활은 곤궁하다. 이러한 궁핍한 생활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지방 주민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여야 恒産할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은 향산이 되어야 恒心이 있다. 향산이 없으면 향심이 없다. 맹자가 齊나라 宣王에게 왕도정치를 설명하면서 “향산이 없어도 향심이 있는 사람은 오직 선비라야 능하지만 일반 백성은 향산이 없으면 따라서 향심이 없으니 향심이 없으면 방종하고 편벽되고 사특하고 사치함을 하지 않음이 없다¹¹⁾.”고 하였다.

백성들은 衣食住가 가장 먼저이다.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 하면 그들은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쉽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면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자이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여 恒産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對句에서처럼 지금 편안히 누워 있을 때가 아니라 하고 있다.

이처럼 이 시는 봄 농사를 부지런히 하라는 자아의 권면하는 마음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그만큼 이곳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2) 주민들의 생활상과 당시의 정세

다음의 셋째와 넷째 시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세 번째¹²⁾ 시의 내용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11) “無恒産而有恒心者，惟士爲能。若民則無恒産，因無恒心，苟無恒心，放辟邪侈，無不爲已。”『孟子』卷1, 『梁惠王』上篇.

12)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蠶絲一百箔 누에 백 발을 기르려 하나니,
 處處呼林端 곳곳 뽕 숲에서 떠드는 소리.
 蠕蠕已三眠 꾸물꾸물 이미 석 잠 자고나니,
 伐盡柔條殘 부드러운 뽕가지는 다 쳤다네.
 共賽馬頭娘 다 같이 마두랑에 제사지내고,
 慎勿學遊盤 삼가 유락이란 배우지 말지라.
 繅車勉女工 물레질에 힘을 쓰는 여공들은,
 卒歲衣裳單 해 다가도록 한 벌 옷뿐이라네.

이 시에서 자아는 목격자 또는 전지적 작가의 입장에서 안동 지방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있는 위치는 뽕밭 가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누에 백 발을 친다. 누에가 어릴 때에는 뽕잎을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나 누에가 자라면 뽕잎을 많이 갹아 먹는다. 자아가 본 누에는 석 잠을 자고 났다. 누에가 다섯 잠을 자고 나면 고치를 맺으니, 석 잠 때가 되면 뽕잎을 가장 많이 먹을 때이다.

首聯의 對句에서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뽕가지를 치느라 분주하다. 백 발이나 되는 누에에게 뽕을 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야 한다. 뽕밭에 사람이 많다 보니 저절로 잡음이 나기 마련이다. 농민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일을 한다. 이 시끄러운 소리는 불만의 소리도 될 수 있고, 서로 정담을 주고받는 소리도 될 수 있다. 尾聯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정담의 소리가 아니고 불만의 소리일 가능성이 크다.

누에가 석 잠을 자고 나니 부드러웠던 뽕나무 가지가 남아 있지 않다. 그만큼 누에가 남김없이 뽕잎을 먹어치웠다. 뽕나무 가지를 다 쳐서 누에에게 먹이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고통이 따른다. 그만큼 고되게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누에가 석 잠을 자고 녑 잠을 자면 채반에다 올린다. 이 때가 되면 누에에게 뽕잎을 줄 필요가 없다. 머잖아 누에가 고치를 만들기 때문이다. 누에가 고칠 잘 만들라고 주민들은 馬頭娘에게 제사지낸다. 마두랑

은 중국 신화에서 蠶神의 이름이다. 말 머리와 사람 몸을 한 소녀였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였다¹³⁾. 주민들이 마두랑에 제사지내는 것은 누에가 좋은 고치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자이는 마두랑에 제사지내고 유락은 배우지 말라고 하였다. 제사지낼 때는 마음을 경건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경건하지 않으면 부정을 타게 된다. 따라서 제사지낼 때 유흥을 즐기는 것은 금물이다.

尾聯에서 보면, 이렇게 고생하여 생산한 누에고치에서 여자들이 물레질 하여 실을 뽑는다. 열심히 누에를 치고, 또 실을 뽑아 비단을 짜지만 그 비단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생활이 궁핍하니 내다 팔아야 한다. 정작 女工들은 한 해에 옷이 한 벌 뿐이다. 그만큼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를 본 자이는 마음이 착잡하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편안하기 때문이다. 물론 자아, 즉 시인은 안동 지방의 목민관이 아니었다. 이 시를 지을 때 그는 義城의 수령이었다. 이웃 고을인 안동 지방 주민들의 생활상을 살핀 그는 그곳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백성들이 못 사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 느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시¹⁴⁾는 이 시보다 한 층 더 어려운 백성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寸土如寸金 한 치의 땅은 한 치 금값인가,
 厥賦猶中中 부과한 세금 기우려짐이 없어.
 慎莫棄閑地 한지(閑地)라도 놔두지 마소,
 地閑逢歲凶 땅이 놀면 그 험 흉년 든다네.

13) 『原化傳拾遺』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실려 있다. “古代高辛氏時，蜀中有蠶女，父爲人劫走，只留所乘之馬。其母誓言：誰將父找回，即以女兒許配。馬聞言迅即奔馳而去，旋父乘馬而歸。從此馬嘶鳴不肯飲食。父知其故，怒而殺之，曬皮於庭中。蠶女由此經過，爲馬皮卷上桑樹，化而爲蠶，遂奉爲蠶神。”

14)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隨宜闢苗處 알맞게 못자리 할 곳 빼고는,
 須盡填植功 다 채워 공들여 심어야 한다네.
 力勤乃有獲 힘써 노력하면 수확 있으리니,
 汝勿爲惰農 그대 농사일 게을리 하지 말라.

자이는 먼저 한 치의 땅값이 한 치의 금값이라 하였다. 여기서 한 치의 땅값은 자신 소유의 땅값도 되겠으나 소작농으로서의 한 해 땅을 빌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값이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땅에 부과한 관청의 세금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임대료나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세금이 워낙 비싸니 농사지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자이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농민들을 독려하고 있다. 閑地라도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식량이 모자라는데, 한지라 해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양식이 모자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이는 못자리 할 곳을 빼고는 한 치의 땅도 놀리지 말고 알뜰히 벼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구절을 보면 당시의 농민들의 마음과 자아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난다.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 농사를 지으려 하지 않는다. 특히 비전박토는 그냥 버려두려 한다. 그러나 자이는 이러한 척박한 땅이라도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배고픔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尾聯에 가면, 자아의 이러한 생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이는 힘써 노력하면 수확이 있을 것이라 하였다. 수확이 적은 땅에서 힘써 농사를 짓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든다. 그것도 비가 알맞게 내리는 해에는 그런대로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해, 즉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난 해에는 廢農하기가 일쑤이다. 이러한 정황을 잘 아는 자아이기에 농민들에게 가능한 희망적인 말을 한다. 어찌 보면 이것이 자아의 인생관인지도 모른다. 비록

현실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야 밝은 미래가 보인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힘겨워 하는 농민들에게 위로가 된다.

이처럼 자이는 목민관이기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 비록 자아, 즉 潘溪가 안동 고을의 수령이 아니지만, 그의 牧民意識이 이 시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다섯 번째 시¹⁵⁾에 가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근면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絢茅織作筐 새끼 때 길쌈 광주리 만들면,
 可以敵盞盆 동이로도 알맞게 쓸만하다네.
 舉家出南畝 온 집안 식구들 앞밭에 나가,
 擔荷常不諼 메고 지고 하는 것 잊지 말라.
 敝屨兼楮楮 헤어진 미투리나 나무토막도,
 收以炊盤飧 거두어 밥 짓는데 쓰게 하고.
 物不可虛拋 물건 헛되이 버려선 안된다고,
 說與諸子孫 여러 자손들에게 일러주시라.

자이는 首聯에서, 새끼 꼬고 때 입히고 베 짜고 광주리 만들면 동이 대신에 쓸 수 있다고 하였다. 물자가 풍부하지 않은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몸을 부지런히 하는 수밖에 없다. 동이는 일반 가정에서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대신할 물건을 만들어 써야 한다. 그것이 다름 아닌 광주리이다. 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새끼를 꼬아 두어야 한다. 못자리 말목을 묶는 데는 새끼가 필요하다. 물을 대기 위해서는 논두렁에 때를 입혀야 한다. 때가 없으면 물을 대면 논두렁이 무너질 수 있다. 이처럼 수련에서는 농사짓기 전, 즉 못자리하기에 앞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해 두는 농촌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 수련이 논농사 준비를 하는 것이라면

15)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頷聯에서는 발농사 준비를 하리는 자아의 독려를 묘사하고 있다.

자이는 모든 집 안 식구들이 앞밭에 나가 메고 지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였다. 앞밭은 집의 남쪽에 있는 밭이다. 이 남쪽은 성장을 상징한다. 『주역』의 『乾卦辭』인 ‘元亨利貞’에서 ‘亨’에 해당하는 방향이 남쪽이다. 물론 자아가 지금 처한 계절은 봄이다. 그러나 자이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고 있다. 성장은 단지 봄이 되어 초목만이 자라는 것이 아니다. 농민들의 삶이 보다 좋아지기를 자이는 바라고 있다.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모든 식구들이 밭에 나와 일을 하여야 한다. 말 그대로 男負女戴하여야 한다. 집 안 식구들이 협력하여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이것은 자아의 의식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潘溪의 성품은 원만하였다¹⁶⁾고 한다.

자이는 또 헤어진 물건이라도 재활용하라고 한다. 미투리나 나무토막도 불쏘시개로 쓰라한다. 이것은 자아의 철저한 절약 정신에서 나온 말이다. 이러한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익혀 그 후손들에게도 전하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 자아의 말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은 그 고을의 주민들이다. 자이는 어디까지나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이다. 위의 시가 봄과 여름의 농촌의 형편을 묘사한 것이라면, 다음의 여섯 번째 시¹⁷⁾는 가을과 겨울철에 그곳 주민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我田出若干 내 밭에서 거둔 곡식 출연하여,
 量分一年食 일 년 동안 먹을 양을 나눈다네.
 深藏斗省費 몇 말은 쓰지 말고 깊이 저장해,
 成性忍飢迫 심한 기근에도 참을 성이 있어야.

16) 藍溪 表沿沫의 「挽俞潘溪好仁」五首(『藍溪集』卷1) 가운데 세 번째 시를 보면 “同鄉同里閤,少長共遊嬉.直諫君爲益,蓬麻我所資.”라는 구절이 있다. 또 金訥의 <先執記>에 뇌계의 인품을 평가기를, “爲人和易,無圭角.”(『顏樂堂集』卷4)이라 하고 있다.

17)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冬時蔬爲糧 겨울에는 채소도 양식이 되나니,
 力農方乃粒 힘써 농사지어야 쌀알 되는 법.
 作意最深遠 마음 가장 깊고 원대하게 하여,
 瞿瞿擬唐俗 놀라운 당풍(唐風)을 모방하리라.

首聯을 보면, 농민들이 자신의 당에서 거둔 농산물을 내어서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나눈다고 하였다. 물론 넉넉한 살림살이 같으면 서로 出捐할 필요도 없고 나눌 필요도 없다.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집집마다 그 수준에 맞게 곡식을 내고는 그 곡식을 식구 수에 따라 나눈다. 이렇게 되면 한 마을의 생활수준이 비슷하게 된다. 이러한 일은 어쩌면 불공평한 것 같지만 어려운 시대에 생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물론 그 뒤의 일이지만 鶴峯 金誠一의 아버지인 淸溪 金璣과 그의 아들 5형제 사이에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자이는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양식을 어느 정도 비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자이의 有備無患의 정신이다. 어려움에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자이는 한 집에 몇 말의 식량은 다 먹지 말고 비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식량에 몇 말을 비축하고 나면 양식이 더욱 부족하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어려움도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을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는 수밖에 없다.

자이는 벼나 보리가 없을 때 채소도 양식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채소는 밭에서 나는 나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산에는 많은 나물이 있다. 흉년이 들었을 때는 들이나 산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한다. 말 그대로 草根木皮로 식량을 대신한다. 자이가 겨울에는 채소도 양식이 된다고 하였다. 거

울은 가을걷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다. 추수가 끝나고 두세 달이 지났으나 벌써 양식이 모자란다. 이것은 당시 안동 지방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말 해 준다. 자아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민들에게 열심히 일할 것을 독려한다. 일을 하는 주체는 자아가 아니다. 자아는 객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아는 희망을 잃지 않는다.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지 말라고 한다. 상황이 어려울 때 마음을 크게 먹어야 한다. 자아는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살기 좋은 날이 올 것이라 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가 바라는 세상은 바로 唐風을 본받는 것이다. 唐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자가 刪輯한 『詩經』에 나오는 唐風이다. 마지막 열 번째 등장하는 『蟋蟀』장은 바로 당풍에 속하는 시이다. 또 한 가지는 堯임금의 나라인 唐나라이다. 자아가 바라는 것이 太平聖代의 이상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더 설득력이 있다. 자아는 백성들이 임금의 힘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帝力何有於我哉]하고 康衢煙月の 노래 부르던 요임금 시절을 동경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이루지 못한 자아의 꿈이다. 다음 단락에서는 자아의 흉년을 극복하는 의지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3) 현실의 고난에 대한 극복의지

한 해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모자란다. 이것을 본 자아의 심정은 참담하 기만 하다. 그러나 자아는 이 기근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자아의 이러한 생각은 위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 단락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아의 생각을 묘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자아의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이 벌써 배고픔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 먼저 일곱 번째 시¹⁸⁾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瞻彼清涼山 저기 저 청량산 바라다보니,
 山中多橡木 산 속에 상수리나무도 많네.
 今年似去年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離離實可拾 주렁주렁 열매 주을만 하네.
 舉家負戴歸 온 집안 식구들 지고이고 와,
 春屑甕中積 짙은 가루 독안에 쌓아두네.
 凶年豈殺余 흉년이 어찌 나를 죽이리오,
 猶可代粟粒 오히려 곡식 대신하게 되네.

자아가 바라보고 있는 산이 청량산이다. 이를 두고 볼 때 물론 자아가 안동 읍내에서 청량산을 언급할 수도 있다. 청량산은 지금 奉化郡에 속해 있지만, 안동과는 그다지 먼 거리가 아니다. 즉, 자아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산이 청량산이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자아가 실제로 청량산 가까이 가서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지었을 수도 있다.

자아가 바라본 청량산은 말 그대로 세속의 욕심을 가지지 않는 清涼이다. 그러나 그 산을 통하여 자이는 배고픈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청량산에 많이 있는 도토리, 또는 상수리 열매를 주워서 밥 대용으로 하는 일이다. 자아가 보니 상수리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 이를 통해서 자이는 잠시 安堵한다. 땅이 척박하여 가을걷이가 넉넉하지 않지만 산골이라 나무 열매가 많다.

頸聯에 가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도토리를 주워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비축한다. 이것은 有備無患의 정신이다. 다음 해 봄부터 여름까지 식량으로 쓸 양식을 가을에 비축해 놓지 않으면 그 때가 되면 굶주리게 된다. 따라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이러한 광경을 본 자이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

18)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음이 아프다. 자신이 목민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생활이 자신의 잘못인 것 같다.

미련에 가면, 이러한 생각이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아는 흉년이 어찌 나를 죽이리요, 나무 열매들이 곡식을 대신한다고 탄식한다. 그만큼 자아의 마음이 무겁다. 여덟 번째 시¹⁹⁾에 가면 그래도 다음 농사가 잘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나타난다. 그 내용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年年上元夜 해마다 정월 대보름 밤이 되면,
 候月眞不差 절후와 달빛 진정 차이가 없네.
 依前群望處 지난해처럼 떴지어 바라보던 곳,
 老翁一時皆 늙은이들 한꺼번에 다 모였다네.
 相視占豐凶 서로 보고 풍년과 흉년 점치고,
 農談喧里街 농사이야기에 온 마을 시끄러워.
 但願供租賦 오직 바라는 것은 조세 바치고,
 次及養殘骸 다음에 늙은 몸 기르게 되기를.

먼저 首聯에서는 시간 배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처한 시간은 정월 대보름이다. 자아는 대보름달을 보고 자신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달빛과 절후가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니, 자아의 마음은 둥근 보름달처럼 이 한해도 원만하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희망은 자아만이 가진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달빛을 구경한다. 이러한 행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이다. 지난해에도 늙은이들이 자아가 선 곳에 많이 나왔다. 늙은이들이 달빛 구경하러 오면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남녀노소가 모두 언덕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있다. 이들의 소원은 소박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올해는 풍년이 들어 배고픔을 면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달빛을 바라보면서 서로 풍년과 흉년을 점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풍년이 들 것이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희망이다. 주민들은 머잖아 시작할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는다.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봄이 가까워진다. 봄이 오면 다시 농사일을 시작해야 한다.

尾聯은 농민들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이들의 희망은 참으로 소박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농사를 지어 세금내고 노인을 봉양할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주민들은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절은 사람들이 비록 굶을지라도 노인들은 봉양해야 한다. 노인들은 앞으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을 봉양하지 않으면 이들이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게 된다. 또 나라 살림살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효도요, 나라에 세금을 잘 내는 것은 충성이다. 이처럼 자아의 생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효가 그의 머릿속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하겠다. 아홉 번째 시²⁰⁾는 일곱 번째 시에 대한 부연이라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荒政第一策 흉년에 대비하는 첫째 방법은,
 麥麴兼麻粍 보리와 메밀 감자 범벅이라네.
 么麼莫輕擲 작은 것도 함부로 아니 버려야,
 可免溝壑身 굶어 죽는 신세 면할 수 있네.
 寄言同社子 같은 마을 친구들께 말 부치니,
 且勿憂艱辛 어려운 살림을 근심하지 말게나.
 山中十八公 산 속에 늘어진 소나무들이,
 解衣活吾人 옷을 벗어 우리를 살려준다네.

20) 『潘裕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8쪽).

자이는 먼저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구황 식품은 보리, 메밀, 감자, 범벅이라 하였다. 보리와 메밀, 감자는 쌀 대신 먹을 수 있는 식품이다. 범벅은 쌀로도 만들지만, 밀가루로도 만들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입증해주는 단어이다. 쌀밥은 생각할 수도 없던 시절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그마한 것도 아껴 써야 한다. 함부로 낭비하면 머잖아 굶어 죽게 된다. 그만큼 삶이 각박하다. 생활이 어려울 때는 순수한 마음을 잃을 수 있다. 이때가 되면 이성이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앞선다. 그러나 자이는 여유가 있다.

頸聯을 보면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려운 살림살이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것은 尾聯의 산속의 소나무 껍질로 목숨을 이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아 자신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한해의 농사를 지어보야 남을 것이 없는 농민들의 생활상을 목격하니, 그것이 마치 자신의 책임 같다. 그가 비록 救荒策을 내 놓지만, 그 자신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무리 자아 자신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들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것이 그를 안타깝게 한다. 그러나 그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項을 바꾸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4) 농사일의 마침과 자아의 희망

마지막 열 번째 시²¹⁾에서 자이는 한해의 농사를 마친 것과 자신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자이는 먼저 『詩經』 「蟋蟀」장의 첫 구절로 이 단락을 시작한다. “귀뚜라미 소리가 집에서 들리니, 한 해가 이미 저물었도다²²⁾.” 라는 구절에서 앞 구절을 그대로 따와서 자신의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단

21) 『潘谿集』卷3 (『韓國文集叢刊』15, 129쪽).

22) “蟋蟀在堂，歲聿既莫.” 『詩經·唐風』 「蟋蟀」章.

지 『시경』의 원문은 네 글자인데 비해 이 시에서는 ‘我’가 더 들어가 다섯 글자가 되었다는 것이 다르다. 시의 내용을 들어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蟋蟀在我堂 귀뚜라미 우리 집에서 우니,
 西成慶多稔 가을 풍년들어 좋은 일 많네.
 欲作一日歡 하루의 이 기쁨을 만들고자,
 爲酒供歌舞 술을 빚어 함께 노래 춤추네.
 此意似大康 이 분수없이 즐기는 것 같아,
 持以規諸父 여러 어른들을 닦달한다네.
 古人曾有詩 옛 사람도 이런 시 있었나니,
 粒粒皆辛苦 알알이 모두 고생한 대가라네.

귀뚜라미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철은 가을이다. 가을이 되니 어느덧 한 해가 다 가 간다. 이때가 되면 일 년 농사일도 끝이 난다. 봄에 씨를 뿌리면 그것이 싹터서 서서히 자라다가 여름이 되면 무성하게 된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이런 무성한 곡식들이 여문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들은 이것을 수확한다. 비록 가난하지만 수확한 곡식이 있기에 그나마 마음이 넉넉하다. 이러한 수확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고 술과 떡을 빚어 마을 사람들이 한 데 어울린다.

그러나 이 즐거움에는 분수가 있어야 한다²³⁾. 너무 지나치게 즐기면 무리가 생긴다. 무리가 생기면 서로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마침내 危亡에 이르게 된다. 자아의 이러한 생각은 『시경』의 「실술」 장의 내용과 많이 닮았다. 朱熹는 「실술」 장의 注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23) 『詩經·唐風』 「蟋蟀」章의 천 단락에도 이 점을 경계하고 있다.

蟋蟀在堂，歲聿其莫。 귀뚜라미 집에 드니, 이 해도 저무누나.
 今我不樂，日月其除。 지금 한 번 놀아보자, 해와 달은 가고 말아.
 無已大康，職思其居。 분수없이 즐기다가, 집 안 일을 어쩔 건가.
 好樂無荒，良士瞿瞿。 노는 데도 법도 있어, 선비들은 조심하네.

당나라 풍속이 부지런하고 검소하였다. 그러므로 그 민간들이 1년 내내 고생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하다가, 해가 저물어 일이 한가할 때에 이르러서야 서로 연회하여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면서 말하기를, “귀뚜라미가 집에 있으니, 어느덧 해가 이미 저물었네. 이러한 때를 맞아 즐기지 않으면 세월이 우리들을 버리고 흘러가고 말 것이다.”하였다. 그러나 걱정이 깊고 생각이 멀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도 갑자기 서로 경계하기를, “지금 비록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으나 즐거움이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또한 그 직분에 맡은 것을 돌아보고 생각하여, 비록 즐거움을 좋아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아서, 저 훌륭한 선비들이 길이 염려하고 뒤를 돌아보듯이 한다면 위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민속이 순후하여 이전 성인의 유풍이 멀리까지 미치지 이와 같았다²⁴⁾.

위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이 한 해 내내 고생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이제 수확하고 나서 한가로운 때를 맞아 燕會를 베풀었다. 잔치에는 술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술을 많이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놀지 말아야 한다. 이 점을 선비들이 경계한다. 자아, 즉 시인이 이 시를 지은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경계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에서는 자아와 시인이 일치한다.

자아는 비록 안동 지방의 땅이 척박하여 수확이 적으나, 농민들이 잠시 燕樂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여야 서로 화합을 이룰 수 있다. 자아가 바라는 것은 멀리 堯임금의 唐나라의 백성들처럼 안동 주민들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기원한다. ‘唐風’은 바로 요임금의 시대의 풍속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唐俗勤儉，故其民間終歲勞苦，不敢少休，及其歲晚務閒之時，乃敢相與燕飲爲樂，而言今蟋蟀在堂，而歲忽已晚矣。當此之時而不爲樂，則日月將舍我而去矣。然其憂深而思遠也。故方燕樂而又遽相戒曰，今雖不可以不爲樂，然不已過於樂乎。蓋亦顧念其職之所居者，使其雖好樂而無荒，若彼良士之長慮而却顧焉，則可以不至於危亡也。蓋其民俗之厚，而前聖遺風之遠如此。”『詩經·唐風』「蟋蟀」章，朱子注。

뇌계는 이 <花山十歌> 말고도 『教坊謠』, 『安東教坊謠』, 『咸陽竹枝曲』²⁵⁾ 등의 시를 지었다. 이들은 엄격히 말하면 시가 아니다. ‘歌’, ‘謠’, ‘曲’이라는 말이 제목의 뒷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성격은 모두 紀俗詩에 해당한다. 그 지방의 풍속을 읊고 있다. 특히 『죽지곡』은 그의 스승인 估畢齋 金宗直과 그의 同門인 止止堂 金孟性的 작품도 있다. 점필재는 凝川, 즉 밀양의 풍속과 남녀의 정분에 대해서 읊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 고향 星州 伽川과 咸陽의 풍속을 묘사하였다. 뇌계의 스승인 점필재는 『죽지곡』 말고도 제주도의 특산과 풍습에 대해서 읊은 『毛羅歌』, 羅州의 고려 事跡과 풍물을 읊은 『錦城曲』, 善山의 遺風과 情緒를 읊은 『十絶歌』를 지었다.

이 세 사람의 작품 말고도 다른 사람의 작품이 있다. 특히 영남 지방의 선비들 사이에는 이러한 향촌을 소재로 한 시를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향촌 사회 주민들의 삶이었다. 위 세 사람은 모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림파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 가운데 점필재는 사림파 가운데 선구자이다. 당시의 훈구파들이 서울, 즉 漢陽을 기반으로 하여 활동하였다면 이들은 대부분 향촌, 즉 영남 지방을 근거로 하여 성장하였다. 자신들이 태어나 성장한 고을을 배경으로 하여 지은 작품이 점필재·지지당·뇌계의 『죽지곡』과 점필재의 『십절가』이다. 이들 작품은 시인들이 성장하여 出仕한 뒤 여러 가지 연유로 고향을 찾았을 때 지은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시인들이 관직생활을 하면서 지은 작품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뇌계의 <화산십가>와 『안동 교방요』, 점필재의 『탁라가』·『금성곡』·『십절가』이다. 물론 이외에도 더 있다. 이러한 몇 작품으로 알 수 있

25) 『죽지곡』에 대해서는 줄고, 『죽지곡』에 나타난 선비의 형상, 『상주문화연구』19, (경북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2009.12. 31.) 69-99쪽에서 논의한 적이 있다.

는 것은 시인들이 서민의 삶에 관심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뇌계와 지지당은 점필재의 문인이다. 지지당과 점필재와 막역한 사이로 나이 차이가 그다지 나지 않는다. 점필재는 그를 제자라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하였다.

뇌계는 그의 <화산십가>에서 먼저 안동 지방의 지리적 위치를 묘사하였다. 즉, 紀俗詩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위치를 먼저 묘사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낯설지 않게 한다. 둘째는 그 지방 주민들의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주민들의 농사일은 물론이고 농가의 부업으로 하는 누에치기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벌이는 일들에서 자아의 안타까운 심정이 녹아 있다. 자이는 그곳 주민 생활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묘사하였다. 주민들이 고통 받는 것은 목민관이 그 고을을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땅이 척박하여 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이 시를 지었을 때는 뇌계 자신이 관리였기 때문에 목민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셋째 그러나 이 시를 통하여 볼 때 뇌계는 비록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독려해서 그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공동분배, 근검절약이 핵심이다. 이러한 뇌계의 생각이 바로 후대의 淸溪 金璣과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원천이 되었다.

넷째 뇌계가 이 시를 지은 목적은 당시 주민들의 어려움을 폭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慰撫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뇌계가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자신이 목민관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높이 살만하다.

다섯째 뇌계는 점필재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한편으로는 문학에 대한 소질이 대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도학에 대한 식견도 깊었다. 그는 한 사람의 문인이면서 도학자요, 목민관이었다. 뇌계는 자신이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하여 이 <화산십가>를 지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도학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뒷날 事理에 중점을 두는 조선 후기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그의 『安東教坊謠』는 19세기 중·후기 鄭顯奭의 『教坊歌謠』의 등장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뇌계의 『교방요』와 조선 후기의 『교방요』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5. 맺음말

본고는 潘溪 俞好仁(1445 세종 27- 1494 성종 25)이 1491년 47세의 나이로 안동에 갔을 때 지은 <花山十歌>에 나타난 자아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형식면에서 보면, <화산십가>는 五言律詩 10首로 된 連作詩이다. 구성면에서 보면, 이 시는 起承轉結의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둘째 서정적 자아의 視點面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漢詩에서는 시인과 자아가 일치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자아와 시인이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자아가 3인칭 목격자 시점, 또는 3인칭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자신의 심경을 묘사하고 있다.

셋째 이 시의 창작 대본은 『詩經』이다. 뇌계는 自序에서 『시경』 「七月」 장을 본떠 이 시를 지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國風의 여러 시에서 用事하고 있다.

넷째 내용면에서 보면, 이 시는 社會詩 또는 紀俗詩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당시의 풍습과 서민들의 생활상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난 자아의 정신은 민중의식, 또는 서민의식이며, 重商主義가 아니라 重農主義이다. 그는 이 시를 통하여 주민들을 교화하려 하였다.

다섯째 이 시의 시간적 배경은 봄부터 가을까지이다. 즉, 농민들이 농

사일을 시작하는 파종기부터 농사일을 마치는 수확기까지의 농촌의 정황을 묘사하고 있다. 이시는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月令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시를 의미단락으로 가르면 네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는 안동의 지리적 위치와 시인의 의식이 나타난다. 그는 淵源을 찾고자 하였다. 이는 겉으로 보면 안동 지방의 연원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의 학문하는 방법이 녹아 있다.

둘째는 주민들의 생활상과 당시의 정세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시점은, 목격자 또는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다. 그는 목민관의 입장에서 안동 지방 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고 가슴 아파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희망적이며 긍정적이었다. 이 점은 그의 성품과 일치한다.

셋째는 현실의 고난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자이는 청량산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는 산을 통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였다. 그는 안동 주민들의 입을 빌려 충효 정신을 심분 강조하고 있다.

넷째는 농사일의 마침과 자아의 희망이다. 한해의 일을 마쳤다고 해서 흥청망청 거리지 말고 자신의 분수를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그의 뇌리에 철저하게 正名意識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통하여 먼 옛날 요임금의 唐나라 때처럼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다. 이것이 그의 理想이다.

끝으로 이 <화산십가>에서는 도학적인 면보다는 현실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뒷날 事理에 중점을 둔 조선 후기 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이상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 한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 보완할 것을 약속한다.

【참고문헌】

- 俞好仁, 『潘溪集』(『韓國文集叢刊』15)
- 金宗直, 『佔畢齋集』(啓明漢文學會 影印本)
- 金孟性, 『止止堂詩集』(木版本)
- 俞炳奭, 「뇌계 유희인의 인생시 고찰」, 『한국학논집』14,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7. 1-18쪽
- 俞炳奭, 「뇌계와 허암의 詩文對比」, 『한국학논집』1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8. 1-20쪽
- 趙慶年, 「유희인의 한시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高南植, 「뇌계 유희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崔載南, 「유희인의 삶과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3, 태학사, 1998. 235-268쪽.
- 崔錫基, 「뇌계 유희인의 志趣와 시문학」, 『남명학연구』20, 경상대학교 남명학연구소, 2005. 31-87쪽.
- 張炳漢, 「뇌계 유희인의 유학 공부론과 실천론」, 『한문학보』17, 우리한문학회, 2007. 551-580쪽.
- 李東宰, 「뇌계 유희인의 「東都雜詠」시 一考」, 『한자한문교육』18,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7. 1-24쪽.
- 劉永奉, 「뇌계 유희인이 남긴 「續匪懈堂四十八詠」과 몇 편의 謠에 관해」, 『한문학보』17, 우리한문학회, 2007. 209-238쪽.
- 이상성, 「뇌계 유희인 사상의 도학적 고찰」, 『유교사상연구』30, 한국유교학회, 2007. 35-77쪽.
- 李九義, 「『竹枝曲』에 나타난 선비의 형상」, 『상주문화연구』19, 경북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2009.12. 31. 69-99쪽, 외 多數.

Abstract

A study on *Noegye Yuhoin's Hwasansipga*

Lee, Ku-Eui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poetry of *Noegye Yuhoin's* (潘溪 俞好仁: 1445 - 1494) *Hwasansipga*(花山十歌)- it's means ten pieces poems under one title of *Hwasan* are what the self-consciousness in which is. These are a quatrain with characters to a stanza. The characteristics of his poem can be summarized into several things.

Firstly, these poems are composed of four steps. Secondly, The persona is describing own state of mind in the third person eyewitness point of view.

Thirdly, the script of these poems are *the Book of Odes*. In these poems, the ancient fables and phrases are quoting from the Book of Ode's *Gukpung*.

Fourth, In contents, these poems are described manners and customs those days. The spiritual sphere of the self is physiocratism this not being mercantilism.

Incompletely, these poems are basing on age of the moon sieves that the fifth this was acid. If it divides these poems to meaning paragraphs, it is divided four sections. The first, it's described the geographical position of *Andong* and the consciousness of the poet. He will look up the origins. It is the origin regional *Andong*,

The second is describing the situation with a life quotient of residents at that time. He was hopeful, and his thought was positive. This point is matched with his nature. The third is expressing conquest intention regarding an actual pressure. Do not have own greed through *Mt. CheongRyang*, and the persona is exposing indirectly. He is emphasizing to a consciousness of moral justification. He was praying for a make to the world to be good for their living through these as *Tang dynasty* - the times of ancient *Yo emperor*. This

is his ideal lands.

In closing, he is emphasizing to a realistic aspect than a Confucian ethics. These affected in the latter period of *Chosun Dynasty's* the literature which describing reason of affairs.

Key-words : a point of view, a poem of describing manners and customs, the origin, *CheongRyang*, ideal, actuality

李九義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 교수

주소 :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번지

전화번호 : 053-950-6166(연구실), 010-3513-4534

전자우편 : kelee08@knu.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